

		보도자료	
배포일자	2026. 06. 24. (수)	보도일시	배 포 즉 시
담당부서	리서치&데이터본부	담당자	고은해 본부장(02-6310-9318) 박윤진 선임연구원(02-6310-9324)
배포부서	ESG솔루션팀	언론담당	박기향 책임연구원(02-6310-9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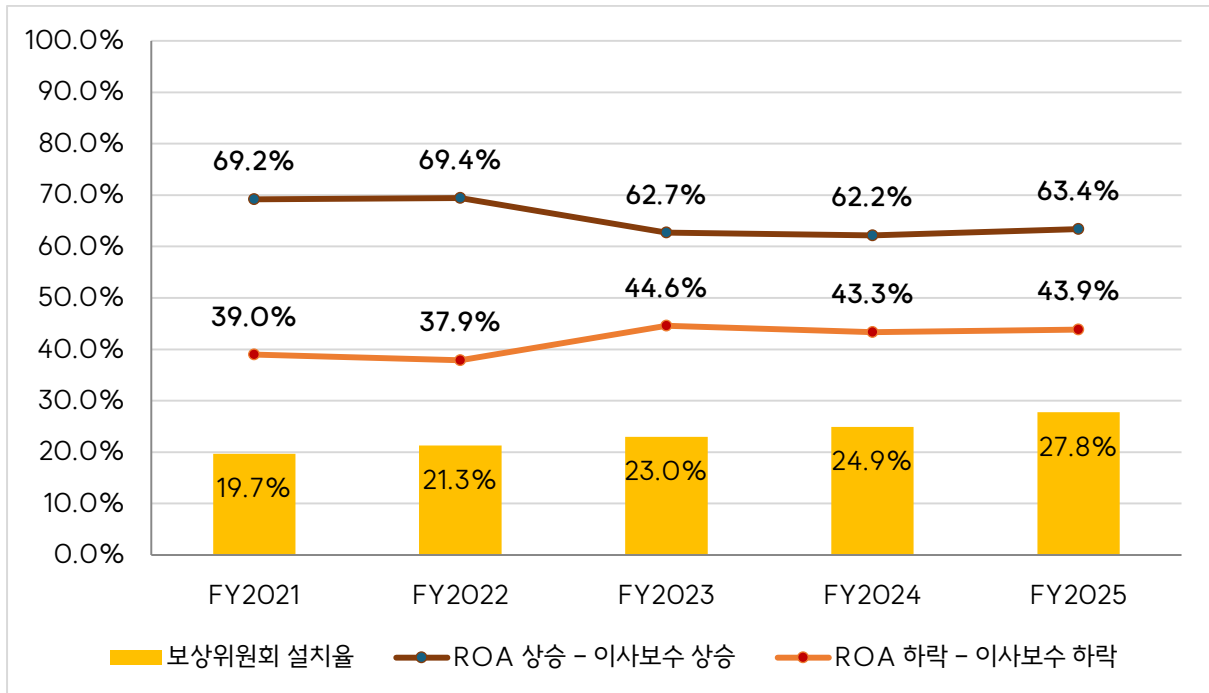
회사 실적 꺾여도 보수는 굳건?... “국내 기업 절반, ROA·보수 증감 격차 여전”

– 서스틴베스트, 2026년 상반기 ESG 평가 결과 발표,
ROA-이사 보수 방향 일치하는 '정합성' 51.3% 불과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가 국내 1,30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ESG 평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ESG 기구 신설과 공시 등 제도적 기반은 갖췄으나,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책임 경영이 실제로 작동하는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지배구조 영역의 '이사 보수 적정성'에서 기업의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의 변동 방향과 이사 보수 증감 간의 연동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개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ROA가 상승했을 때 이사 보수가 함께 상승한 기업의 비율은 63.4%에 달했으나, ROA가 감소했을 때 이사 보수를 줄인 기업은 43.9%에 불과했다. 기업 실적이 좋을 때는 보수를 적극 인상하지만, 실적이 나빠질 때는 그만큼 보수를 낮추지 않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실적 상승기와 하락기 간의 보수 격차는 최근 5년간 30.2%, 31.6%, 18.1%, 18.8%, 19.5%를 기록했다. 5년 전에 비해 격차가 줄어든 것은 보상위원회 설치 기업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될 수 있으나 구조적 개선으로 단정하기엔 이르다. 2023년 실적 부진기에 일시적으로 보수 하방 조정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보상위원회의 실효성은 향후 실적 회복기에 상방 인상이 다시 가팔라지지 않는지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한편 올해 신규 도입된 '이사 보수 산정기준 공시 및 장기성과 연동 여부' 지표에서는 공시와 실질적 제도의 괴리가 부각됐다. 이사 보수 산정기준을 공시한 기업은 전체의 70.1%에 달했으나 대부분 구체적인 산식 없이 추상적인 문구를 나열한 수준에 그쳤다. '3년 이상의 장기성과 연동' 지표를 보상 체계에 반영한 기업은 19.2%에 불과했다.

서스틴베스트는 기업들이 보상위원회 설치에 더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이사 보수 산정 프로세스를 마련해 실제 성과와 이사 보수 간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보수 산정기준의 투명성과 구체성을 제고할 것을 제언했다.

서스틴베스트 류영재 회장은 "이사 보수는 경영진의 목표를 주주의 이익과 하나로 묶는 핵심 장치"라고 설명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는 단순 보상위원회 설치 여부나 형식적인 공시보다, 실적에 따른 보수 산정의 합리성과 장기성과 간의 실질적인 연계를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은 실적에 따른 유연한 보수 조정과 장기 성과 연동이라는 실질적인 책임 경영 실행력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스틴베스트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상장사 100개사를 '2026년 상반기 ESG Best Companies 100'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붙임1] 그림 참고)

'ESG Best Companies' 선정은 자산 규모에 따라 ▲2조원 이상 상장사 50곳 ▲5천억~2조원 미만 30곳 ▲5천억원 미만 20곳으로 나뉘어 이뤄졌으며, 2조원 이상 상위 기업으로는 HK이노엔(195940), 유한양행(000100), NAVER(035420),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으로는, 콜마홀딩스(024720), 신세계인터내셔널(031430), 동아ST(170900) 그리고 5천억원 미만 기업에서는 포스코엠텍(009520), 동일고무벨트(163560), MNC솔루션(484870) 등이 이름을 올렸다.

서스틴베스트는 이번 'ESG Best Companies' 발표를 통해, 기업 경영 전반에서 ESG 모범 사례를 조명하고자 했다. 이번 발표는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현장에서의 책임 있는 경영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서스틴베스트 ESG평가 개요

서스틴베스트는 2006년 국내 최초로 상장기업 ESG 평가를 도입하여 현재는 약 1,300개의 상장·비상장기업에 대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리 수준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평가 결과는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ESG 투자에 활용되고 있다. ESG 분석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와 위험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친화적이고 지배구조가 건전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서스틴베스트의 기업 ESG 평가는 사업보고서 공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시점을 고려하여 시의성 있는 평가를 제공하고자 1년에 2번 실시된다. 상반기에는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공시에 맞춰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하반기에는 환경, 사회를 보강하여 종합 평가를 실시한다.

서스틴베스트는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평가 대상 기업들을 연결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5천억원 미만의 세 그룹으로 구분해 규모별로 차등화된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발표하고 있다.

[붙임1] 2026년 상반기 ESG Best Companies



2026년 상반기 기업 ESG 평가결과

2026.06

목차

I . 서스틴베스트 평가 체계	02
II . 2026년 ESG 평가 결과	04
III. Negative Screening	06
IV. 과소배당기업	08
V. ESG Best Companies	09

I. 서스틴베스트 평가 체계

1. **평가모형:** 당사의 평가 모형인 ESGValue™ 은 상부와 하부로 이어지는 위계적 구조(hierarchy)로 평가 모형의 최상위체계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각 영역은 Category(평가항목), KPI(평가지표), Data Point(세부지표) 순의 단계별 하부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2. **규모별 등급과 전체 등급:** 규모별 등급은 ESG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갖춘 대규모 기업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 한계를 보완하고 ESG 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가려내기 위해 도입한 등급 체계이다.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평가 대상 기업들을 2조원 이상,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5천억원 미만으로 구분해 규모별로 차등화된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고 이에 준해 등급을 부여한다. 규모별 등급과 함께 제공되는 전체 등급은 규모 구분 없이 절대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3. **가중치:** 다수의 하부지표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근거로 가중치를 결정하고, 각 단계별 지표 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해 상위지표의 점수를 산출하고 있다.

또한, 지표 간 상대적 중요성을 근거로 가중치를 결정하되, 그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로 산업별 특성과 각 지표와 재무적 성과 간의 관계(Materiality)를 고려한다.
4. **평가제외:** 해당 기업의 산업적 특성 및 규모 상의 제약으로 인해 특정 지표에 대한 평가가 어렵거나 불필요할 수 있다. 이에 당사에서는 각 기업이 속한 산업과 기업의 규모를 고려해 평가가 어렵거나 무의미한 지표는 평가제외로 분류해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5. **컨트로버시 이슈:** 평가기간 내 ESG이슈와 관련된 논란이 되는 사안 즉 컨트리버셜한 이슈(Controversial Issue)가 발생한 경우 그 사안이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과 유사한 사안의 재발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컨트로버시 레벨을 부여받은 경우,

ESG 영역별 점수에서 각각 레벨에 맞는 점수가 차감된다.

6. **대규모 기업집단 평가:** 대규모 기업집단 평가를 통해 총수일가가 소수지분으로 기업집단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주주가치 훼손 리스크의 정도를 점수화하여 지배구조(G) 영역의 최종점수를 산출하고 있다.

7. **평가등급:** ESG 평가는 AA, A, BB, B, C, D, E의 7 등급으로 이루어진다.

[표 1] 등급별 의미

등급	의미	설명
AA	ESG 리스크 및 기회 관리 수준이 탁월한 기업	ESG 경영에 대한 리더십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핵심 비즈니스 전략에 내재화한 우수 사례를 보여줌
A	ESG 리스크 및 기회 관리 수준이 매우 우수한 기업	ESG 경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주며, 지속가능성 이슈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보여줌
BB	ESG 리스크 및 기회 관리 수준이 우수한 기업	ESG 경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효과적인 ESG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B	ESG 리스크 및 기회 관리 수준이 양호한 기업	기본적인 ESG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ESG 경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있음
C	ESG 리스크 및 기회 관리 수준이 보통인 기업	ESG 리스크 관리 체계를 일부 수립하였으나, 포괄적인 지속가능 전략이 부족하여 ESG 경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D	ESG 리스크 및 기회 관리 수준이 취약한 기업	ESG 리스크 관리 체계가 미흡하며, 포괄적 지속가능 전략의 부재로 모니터링이 필요함
E	ESG 리스크 및 기회 관리 수준이 매우 취약한 기업	최소한의 ESG 리스크 관리 체계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ESG 공시 정보가 부족하여 낮은 ESG 성과로 인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

II. 2026년 ESG 평가 결과

1. **평가 대상 기업:** 당사는 2026년 상반기 ESG 평가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 741개, 코스닥 상장 기업 329개, 비상장

기업 235개, 총 1,305개의 기업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평가 대상 기업 중 연결 기준으로 총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은 452개, 2조원 미만인 기업은 853개이다.

2. 평가 성과 분석: 이번 평가를 포함한 최근 3개 평가시기의 등급 분포와 자산 규모별 등급 분포는 아래 표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 평가시기별 등급 분포 (기업 수)

평가시기 / 등급	AA	A	BB	B	C	D	E	Total
2025 상반기	140	254	381	236	213	52	19	1,295
	10.8%	19.6%	29.4%	18.2%	16.4%	4.0%	1.5%	100%
2025 하반기	154	258	365	240	215	46	21	1,299
	11.9%	19.9%	28.1%	18.5%	16.6%	3.5%	1.6%	100%
2026 상반기	152	272	356	237	225	39	24	1,305
	11.7%	20.8%	27.3%	18.2%	17.2%	3.0%	1.8%	100%

출처: 서스틴베스트

[표 3] 자산 규모별 등급 분포 (기업 수)

구 모	연도 / 등급	AA	A	BB	B	C	D	E	Total
2 조 이 상	2025 상반기	56	92	109	83	65	26	5	436
		12.8%	21.1%	25.0%	19.0%	14.9%	6.0%	1.1%	100%
	2025 하반기	64	78	104	81	79	21	12	439
		14.6%	17.8%	23.7%	18.5%	18.0%	4.8%	2.7%	100%
	2026 상반기	69	96	111	76	72	19	9	452
		15.3%	21.2%	24.6%	16.8%	15.9%	4.2%	2.0%	100%
2 조 미 만	2025 상반기	84	162	272	153	148	26	14	859
		9.8%	18.9%	31.7%	17.8%	17.2%	3.0%	1.6%	100%
	2025 하반기	90	180	261	159	136	25	9	860
		10.5%	20.9%	30.3%	18.5%	15.8%	2.9%	1.0%	100%
	2026 상반기	83	176	245	161	153	20	15	853
		9.7%	20.6%	28.7%	18.9%	17.9%	2.3%	1.7%	100%

출처: 서스틴베스트

III. Negative Screening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사회적 기준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무기(방위), 주류, 도박, 담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최악주(sin stock)를 포트폴리오나 펀드에서 배제하는 투자전략이다. 서스틴베스트는 ESG 평가시 상기 사업 영위 여부에 따라 평가대상종목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지만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측면 의사결정을 돕고자 참고자료로 무기, 주류, 도박, 담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투자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22년 상반기부터는 국내외 석탄 채굴, 석탄 발전, 석탄 사용 집단 에너지 사업 영위 기업 등 석탄 관련 사업 영위 기업을 네거티브 스크리닝 목록에 추가하였다.

무기 관련 기업은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를 포함한다. 스크리닝 기업 중 풍산홀딩스, 풍산은 집속탄(cluster munition)을 생산/판매한다. 집속탄은 민간인 사상자를 내는 무기로 100개국 이상이 생산과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용금지 조약을 체결하였다. 상기 기업들은 이로 인해 상당수 해외 기금 운용 기관들의 투자배제목록(exclusion list)에 포함 되어있다.

아래 표 4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상장기업 목록을 제시하였다. 1) 무기 관련 기업 중 집속탄, 대인지뢰를 판매하는 기업 2) 주류, 담배, 도박 관련 기업 중 연결 혹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해당 사업이 전체 매출액의 40%이상 차지하는 기업

[표 4] 2026년 서스틴베스트 네거티브 스크리닝 기업

종목명	스크리닝 분류	사업 내용
풍산홀딩스	Firearms & Weapons	집속탄 (Cluster weapons)
풍산	Firearms & Weapons	집속탄 (Cluster weapons)
엘아이지	Firearms & Weapons	집속탄 (Cluster weapons)
LIG 넥스원	Firearms & Weapons	집속탄 (Cluster weapons)

종목명	스크리닝 분류	사업 내용
SNT 홀딩스	Firearms & Weapons	대인지뢰 (Anti-personnel mines)
SNT 다이내믹스	Firearms & Weapons	대인지뢰 (Anti-personnel mines)
KT&G	Tobacco	담배 (켈런, 차세대담배, 잎담배)
MH 에탄올	Alcohol	주류제조용 주정
보해양조	Alcohol	주류 (소주, 과실주)
무학	Alcohol	주류 (소주, 리큐르, 과실주)
하이트진로	Alcohol	주류 (맥주, 소주, 막걸리)
롯데관광개발	Gaming	카지노 (도박)
GKL	Gaming	카지노 (도박)
강원랜드	Gaming	카지노 (도박)

IV. 과소배당기업

당사는 기업의 배당 지급 여력과 실제 배당 지급 수준을 비교하여 과소배당에 해당되는 기업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당사는 기업의 부채비율, 미처분이익잉여금, 당좌자산, 배당성향, 배당 수익률 등의 정보 등을 고려해 동종 산업 내의 평균적인 배당 수준과 비교, 과소 배당 여부를 판단하였다. 표 5에서는 과소배당 기업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의 상장기업을 제시하였다.

[표 5] 2026년 상반기 서스틴베스트 과소배당 기업

종목명	섹터명	자산규모
SK 바이오사이언스	제약, 생명공학 및 생명과학	2 조이상
미래에셋자산운용	금융 서비스	2 조이상
동양생명	보험	2 조이상
한화생명	보험	2 조이상
한화손해보험	보험	5 천억이상
세메스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5 천억이상
크래프톤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5 천억이상
DL 건설	자본재	5 천억이상
현대캐피탈	자동차 및 부품	5 천억이상
실리콘투	자유소비재 유통 및 소매	5 천억이상
한국정보통신	금융 서비스	5 천억이상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5 천억이상
DL 에너지	일반지주	5 천억이상

출처: 서스틴베스트

V. ESG Best Companies

[표 6] ESG Best Companies 2026 상반기

순위	기업명	순위	기업명
연결 재무제표 기준 2조원 이상 기업			
1	HK 이노엔	26	대한항공
2	유한양행	27	오리온
3	NAVER	28	삼성화재
4	현대백화점	29	iM 금융지주
5	지역난방공사	30	LG 전자
6	현대지에프홀딩스	31	미래에셋생명
7	현대홈쇼핑	32	포스코퓨처엠
8	DB 하이텍	33	LG 생활건강
9	NC	34	현대제철
10	한국항공우주산업	35	오리온홀딩스
11	GS 리테일	36	현대로템
12	아모레퍼시픽홀딩스	37	S-Oil
13	SK 증권	38	현대모비스
14	LG 이노텍	39	NHN
15	제주은행	40	SK 네트웍스
16	삼성전기	41	미스토홀딩스
17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42	교보증권
18	아모레퍼시픽	43	대상홀딩스
19	폴무원	44	한진칼
20	코웨이	45	LG 화학
21	DB 손해보험	46	녹십자
22	현대엘리베이터	47	LG
23	동아쏘시오홀딩스	48	SK 스퀘어
24	오뚜기	49	한국가스공사
25	KCC 글라스	50	롯데칠성음료

※노란색 셀은 2026 상반기 ESG Best Companies 신규 편입 종목

출처: 서스틴베스트

순위	기업명	순위	기업명
연결 재무제표 기준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			
1	콜마홀딩스	16	롯데하이마트
2	신세계인터내셔널	17	한세실업
3	동아 ST	18	하나투어
4	한독	19	빙그레
5	한섬	20	엠씨넥스
6	콜마비엔에이치	21	AP 시스템
7	코스메카코리아	22	일동제약
8	현대그린푸드	23	SP 삼화
9	HL 디앤아이한라	24	TKG 휴켄스
10	LG 헬로비전	25	강남제비스코
11	애경케미칼	26	경인양행
12	매일유업	27	노루페인트
13	에스티팜	28	동성케미컬
14	보령	29	솔브레인
15	일동홀딩스	30	원익머트리얼즈
연결 재무제표 기준 5 천억원 미만 기업			
1	포스코애폹	11	PI 첨단소재
2	동일고무벨트	12	삼호개발
3	엠앤씨솔루션	13	에코프로에이치엔
4	대양전기공업	14	아이티엠반도체
5	테스	15	에이블씨엔씨
6	가온그룹	16	한국석유
7	한미글로벌	17	한솔홈데코
8	안랩	18	경보제약
9	비츠로셀	19	모나리자
10	테이팩스	20	평화산업

※ 노란색 셀은 2026 상반기 ESG Best Companies 신규 편입 종목

출처: 서스틴베스트

(주) 서스틴베스트 | 02-6310-9300 | www.sustinvest.com

본 보도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재산권은 당사에게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2026. SUSTINVEST Co., Ltd. All rights reserved.